

綜合的인 技術振興政策 추진

全大統領, 技術振興審議會서 지시

全斗煥대통령은 4월27일 제 1 회 기술진흥심의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의 세계는 숨가쁜 기술 혁신의 시대이며 기술혁신에서 뒤떨어지면 經濟戰爭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 「정부와 企業, 學界가 모두 一心해서 기술혁신에 힘써 기술입국을 앞당기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면서 「새로 발족된 技術振興審議會를 효율적으로 운영, 세계의 기술동향을 점검,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여 일관성있고 종합적인 기술진흥정책을 세워 추진토록할 것」을 지시했다.

1 號機 200억kWh 돌파

4,500억원의 유류절감효과

國內 최초의 原電인 古里 1號機가 3월31일 發電量 200kWh를 돌파하였다.

지난 78년 6월26일 世界 21번째 原電으로 탄생한 原子力 1號機는 그동안 경제적인 發電을 계속하여 기저부하담당의 큰 몫을 맡아옴으로서 약4,500억원의 유류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등 국민 경제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月城原子力 年次보수 착수

AECL 및 國內기술진 공동으로

月城의 原子力 3號機가 3월28일부터 두달동안 發電을 멈추고

또한 全大統領은 「대덕연구단지 各 研究所의 연구기능이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우수한 두뇌가 집결하는 연구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研究員의 대우, 시설, 자녀교육 등 생활편익을 위한 여건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李正五科學技術處長官은 대덕연구단지를 고도과학기술중심지역(테크노폴리스)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기연차보수에 들어갔다.

AECL기술진과 國內기술진이 공동으로 5월26일까지 점검할 주요사항은 증기발생기의 개조를 비롯해서 原子爐建物 누설시험, 고압펌프 분해검사, 주발전기 분해검사, 1차열수송펌프 점검 등이다.

「韓電補修株式會社」 발족

電力設備 보수기술축적 촉진

전력설비의 개보수를 주요사업 목적으로 하는 韓國電力補修株式會社가 4월 1일 韓國電力公社의 계열회사로 정식 발족, 초대 사장에는 金善稔 韓電副社長이 선임(점무) 되었다.

이번에 시설관리의 전문회사가 발족됨에 따라 電力設備 보수에

관한 기술축적의 촉진과 효율적인 전력설비의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核燃料 國産化計劃 推進

國內資本으로 工場建設

政府는 外國의 核燃料제조업체와 합작투자로 건설할 계획이던 核燃料成型加工工場을 100% 국내자본으로 건설하여 핵연료국산화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5월10일 동자부에 따르면 輕水爐用 핵연료 선형주기의 최종단계인 成型加工부문의 국산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핵연료성형가공공장은 당초 外國의 핵연료제조업체와 합작투자형태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外國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技術自立을 추진키위해 外國회사와는 기술계휴만을 하고 100% 국내자본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韓國核燃料(株)에 대한 투자계획조정과 함께 국산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 1단계로 펠릿제조 및 핵연료 집합체 조립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2단계로 再轉換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韓國核燃料(株)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술계휴선을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 美國의 WH, CE, 엑슨社, 프랑스의 코제마社, 西獨의 KWU社 등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工場의 성형가공능력은 輕水爐 약10基分の 소요량에 해당하는 연간 2백톤 규모로서 농축

ANS 韓國支部 뉴우스

**第2次 年次總會 開催
會長에 金善昶 副社長**

美國 원자력 학회(ANS) 한국지부 제2차 연차총회가 5월17일 하오 4시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金鍾珠 회장의 인사말과 鄭根謨 박사의 경과보고 및 全豐一 박사의 재무현황보고가 있는 다음 任期가 만료되는 임원을 새로 선임하였는데 金鍾珠 초대 회장 후임에는 金善昶 副會長(韓國電力公社 副社長)이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부회장에 鄭根謨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서기에

文熙晟 한국전력공사 이사, 회계에 全豐一 한국에너지연구소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이 선출되었으며 運營委員會 委員으로서는 당연직인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이외에 金중주 前회장, 차중희 한국 원자력학회 회장, 고중명 현대건설(주) 부사장, 박시열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정문헌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R. C. Liimatainen 미국대사관 과학관이 선출되었다.

또한 새로 신설된 주무(Assistant Secretary/Treasurer) 직에는 한국전력기술(주)의 권이영 특별보좌역이 선임되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미국대사관의 Paul M. Cevaland 부대사가 韓·美間 경제적 및 기술적 協力에 관하여 특별강연을 하였다.



우라늄을 재전환하여 펠릿제조, 집합체조립 등의 단계를 거쳐 原子爐에 裝填되는 최종 핵연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韓·獨原電세미나開催
兩國의 原電을 비교분석**

韓國에너지研究所와 韓國原子力學會는 科技處와 西獨 연방연구기술성(BMFT)의 후원으로

4月2日부터 4日까지 3일간 韓·獨 원자력발전공공세미나를 開催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西獨의 原電運轉과 핵연료사이클에 대한 최근 현황이 다각적으로 소개되었는데 특히 西獨 原電의 품질보증, 핵연료사용 및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경험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서독과 우리나라의 원

자력발전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원자력발전 노력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독 연방연구기술성의 Schroeter 박사를 비롯 9명의 원자력전문가와 우리나라에서는 全豐一 박사를 비롯하여 3명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韓重, 직제일부 조정개편
중간계층과 담당 縮小**

韓國重工業(株)은 생산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Proposal 기능을 각 영업본부로 이관하여 영업의 기능을 원활케하고 생산관리를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지원과 생산관리의 능률화, 프로젝트관리의 강화, 생산본부의 설계기능을 전문화 및 정착화하고 영업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이로서 생산본부는 2개 부분부 및 9개 담당이 기술부분부장 생산부분부장 2개 부분부장과 3개 담당제로 되어 중간계층과 담당을 축소했다.

科學車 全國순회

11月까지 9 개월동안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오는 11월까지 「과학차」를 과학시설이 미비한 전국의 벽지 國民學校를 대상으로 순회 운영한다.

과학차의 프로그램은 현미경을 이용한 과학실험실습과 과학상자를 활용한 50여가지의 모형조립실습이 있으며 과학 영화상영도 있다.